



“돼지고기 소비홍보는 저희들이 맡겠습니다.”

— 김해지부 부녀회 창립, 초대회장에 김신옥씨 —

취재 : 이상길 기자

식품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은 남성들보다는 아무래도 섬세하고 친화력 있는 여성들에게 더 잘 어울린다. 본회 김해지부(지부장 : 류정상)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들을 소비홍보현장의 전면에 등장시켰다.

김해지부 회원부인들은 지난 9월29일 11시 김해시내 상아예

식장 5층 그릴에서 회원부인 42명과 본회 최상백 부회장, 박철곤 조합장(부산경남양돈조합), 류정상 김해지부장, 지부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지부 부녀회 창립총회」를 갖고 김신옥씨(47세, 7대 지부장 강복균씨 부인)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양돈업종사자들의 부인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활동적이어서 그간 각종 행사 등 협회 일에 항상 발벗고 나서왔다. 그러나 그때 그때 일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여성 특유의 잇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이번 김해지부 부녀회의 창립은 여성들을 상설기구로 묶어줌으로써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케

해서 그간의 활동을 한 차원 높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류정상 지부장은 『돼지고기를 홍보하는 데는 장바구니 경제를 담당하는 여성들이 감각면이나 실제 생활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전제, 『그러나 회원부인들도 일반여성들이나 마찬가지로 돼지고기가 왜 우수한가에 대한 지식은 의외로 부족했다』면서, 이번 김해지부 부녀회 창립을 계기로 부녀회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 홍보요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회 최상백 부회장과 박철곤 조합장은 격려사를 통해 『김해지부는 축산법개정에 앞장서는 등 양돈산업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치하하고, 『처음 창립되는 부녀회인 만큼 부녀회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협회 모든지부의 모범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회원부인들의 뜨거운 참여속에 진행된 창립총회는 김문성 회원 부인인 정복숙씨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정관을 확정지은 후 김신옥씨를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했다.

김해지부 부녀회는 앞으로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사

의 참여와 주도 ▲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판매사업 ▲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등을 전개기로 했으며, 타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많으므로 아파트단지 등에 행사매장을 설치하여 「항생물질이 없는 무공해 돼지고기」라는 표어를 내걸고 포장육을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지부 부녀회는 지난 10월21일 김해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김해시·군 양돈인체육대회」에도 참여, 점심과 음료수를 제공했으며, 커피를 팔아서 남은 이익금은 부녀회 기금으로 적립시켰다고 한다.

이번에 선출된 김해지부 부녀회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부군).

▲ 회 장 : 김신옥(강북군)

▲ 부회장 : 배경자(오병역), 김정자(이시길), 김숙자(유을중), 한덕지(이인학)

▲ 총 무 : 서정애(박철곤), 김영순(이영식), 유선아(류정상), 정정남(한무회)

▲ 간 사 : 최말란, 이외에 각 지역간사 20명

김신옥씨 프로필



김신옥씨

김신옥씨는 『안할려고 했는데 억지로 시킨다 아입니까』라면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왕 뽑혔으니 열심히 해야되지 않겠습니까』라며 다부진 결의를 보였다.

김신옥 부녀회장은 「앞으로 회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돼지고기 소비촉진 활동에 발벗고 나서겠으며, 타지부에서도 회원부인들이 동참하면 양돈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제고는 물론, 양돈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나이 : 47세 ▲ 부군 : 강북군씨 (47세) ▲ 농장 : 옥천농장 ▲ 자녀 : 3남1녀 ▲ 고향 : 김해시 대동, 옥남매중 둘째, ▲ 현주소 : 김해시 동산동 한송빌라